단 신

미얀마 군부 규탄대회

대전시지부는 4월 11일 대전역 서광장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및 군부 쿠데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충북도지부는 3월 25일 자유회관 앞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관련 피켓과 홍보물을 들고 규탄대회를 실시했다.

환경정화활동

충남 당진시지회는 4월 10일 면천면 아미산 일대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며 '자연보호' 리본을 붙였다.

대전 동구지회는 4월 2일 대청호 벚꽃길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충북 옥천군지회는 3월 27일 옥천읍 내 금구천 주변 쓰레기 줍기를 하며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조직간부 간담회

충남도지부는 4월 8일 충남통일관에서 신임 회장 상견례 행사에 이어 2021년 추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교통안전 캠페인

충남 천안시지회는 4월 7일 성거초교와 삼거리초교 앞에서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 및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세종시 대평동분회 어머니포순이봉사단은 3월 23일 대평초교 통학로에서 하굣길 스쿨존 갓길 주정차금지 홍보활동을 펼쳤다.

조직간부 이·취임식

대전 서구지회는 4월 2일 서구 새마을회관에서 허정옥 여성회장의 이임식과 송양희 여성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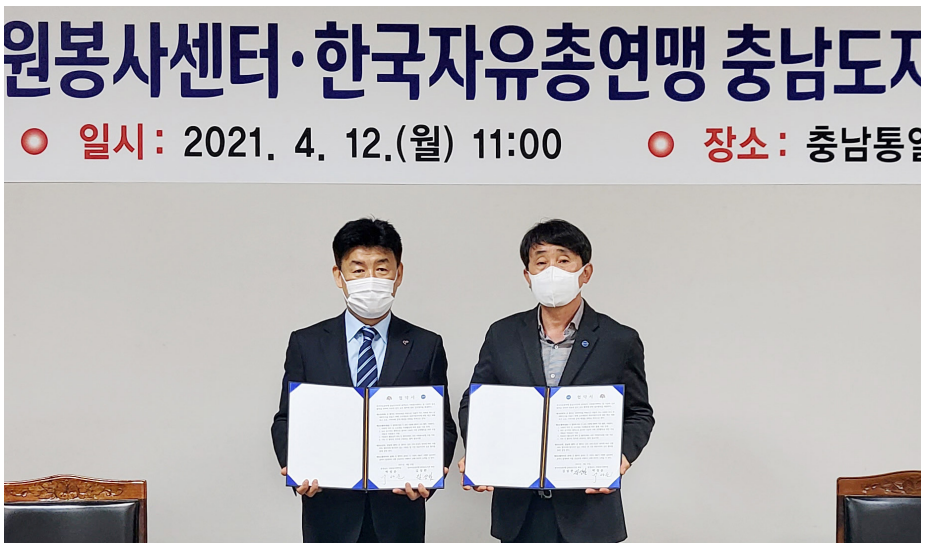
충북 진천군지회는 3월 19일 지회에서 송재관 청년회장의 이임식과 염은상 청년회장의 취임식을 했다.

충남도지부-충남자원봉사센터 업무협약

국리민복 가치를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 공동 노력

충남도지부(회장 김상한)와 충남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성순)는 4월 12일 충남도지부 강당(공주시 소재)에서 소외 계층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재난재해 복구수호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지원활동에 따른 물품지원연계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으로 봉사와 나눔의 사회 공헌활동을 위한 사업개발과 자원봉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상한 회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동사업에 필요한 역량강화와 상호 업무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촉진 운동 챌린지 전개

| 충북도지부 |

충북도지부(회장 직무대행 박종원)는 4월 7~8일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충북 소비촉진 운동'의 일환으로 챌린지 참여와 1인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박종원 회장 직무대행은 "범도민 소비촉진 운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11개 시·군지회 캠페인 참여 독려와 회원 대상 SNS 홍보활동 등을 전개해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온기 가득 밑반찬 전달

| 세종 새롬동분회 |

세종시 새롬동분회 여성회(회장 조복자)는 4월 8일 지역 내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밑반찬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새롬동주민센터를 통해 추천받은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11가구에 밑반찬을 전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조복자 회장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늘 마음이 쓰였다"면서 "밑반찬 배달이 조금이라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랑의 무료 의료봉사

| 충남 공주시지회 |

충남 공주시지회(회장 김윤철)와 공주시성모안과(원장 천희종·강재훈)는 4월 6~7일 이틀간 수술이 필요한 지역내 독거노인 백내장 환자에게 무료 수술을 진행했다.

김윤철 회장은 "공주시성모안과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웃사랑 나눔 활동을 더 많이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사랑 나눔 감자 심기

| 대전 동구지회 |

대전 동구지회(회장 김창환)는 4월 2일 동구 소재 주말농장에서 '사랑 나눔 감자 심기'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에는 황인호 구청장(동구청)과 김창환 회장, 김지현 시지부 사무처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심은 감자는 7월 중 수확, 북한이탈주민과 저소득층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사랑의 헌혈 릴레이

| 충북도지부 |

충북도지부(회장 직무대행 박종원)는 3월 26일 청대 앞 센터에서 전국청년협의회 청년회장단(회장 이승우)과 청주시·진천군지회 청년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코로나 극복 사랑의 헌혈 릴레이' 봉사를 펼쳤다.

이승우 회장은 "사랑의 헌혈 운동을 통해 헌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혈액 수급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